

# 四象人病證藥理의 成立過程과 그 運營精神에 대한 考察

宋一炳\*

## 요 약

사상의학은 사상인의 심신균형(心身均衡)을 추구하는 의학으로 사상인의 병증약리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추구정신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요약되며 마지막으로 병증약리의 운영정신을 논하였다.

### 1. 형상의학(形象醫學)과 형증병증(形證病證)의 추구정신

사상의학은 기리형표(氣裏形表)의 정신에 입각한 형상의학(形象醫學)을 바탕으로 성정(性情), 체질증(體質證)과 체질병증(體質病證)을 확립하고 형증병증(形證病證)이라는 변증체계를 확립 적용한 의학이다.

### 2. 귀납적(歸納的) 방법과 실증적(實證的) 의학

사상의학은 의학의 학문적 발전 위에서 선현의 의학적 경험과 자신의 체험을 통해 귀납적 방법으로 형증병증(形證病證)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신균형(心身均衡)을 위해 실증적(實證的)으로 전개하였다.

### 3. 사상의학은 인간(人間)중심적 병리관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 내경의학은 도가(道家)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천인상응(天人相應)관계를 근간으로 하지만 사상의학은 유학(儒學)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성정론(性情論)적 병리관과 윤리도덕(倫理道德)적 병리관이 근간이 된다.

### 4. 정기(正氣)중심의 병증약리의 추구정신

기존의학은 정사(正邪)의 보사(補瀉)를 치료의 원칙으로 삼았으나, 사상의학은 정기(正氣)를 중심으로

---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병사(病邪)에 대항하는 양상에 따라 순역(順逆)으로 나누고 정기(正氣)의 승강완속(升降緩速)을 조절함에 치료의 주안점을 둔다.

#### 5. 확대된 심신론(心身論)적 치료정신

질병은 성정(性情)을 바탕으로 유발되므로 육체적 병증의 치료외에 정신적 성정의 편차를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된다. 그리고 약물의 치료외에 생활의 양생을 통해 질병을 관리함으로써 치심치병(治心治病)을 통한 의학적 정기(醫學的 正己)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 6. 예방과 양생의학의 추구정신

사상의학은 질병 이전에 생활속에서 정기(正己)를 통해 인격을 완성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사회의학(社會醫學)으로서 개체의 질병관리를 보다 전개하여 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의학이다.

이상과 같이 사상의학은 네 체질의 차등적(差等的) 병증약리를 적용하여 <중용(中庸)>의 “조화(調和), 조절(調節)” 정신과 “자율적 조절(自律的 調節)” 정신을 통한 심신균형(心身均衡)을 추구하는 의학이다.

## I. 序論.

동무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내면적으로 사상인의 “臟腑性理”를 완성하고 외형적으로 “體形氣像”을 제시하여 네 체질의 사상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인에 대한 네 체질의 발견보다 더 중요한 업적은 사상인의 病證藥理를 새로이 개발하여 체질론적 치료방법을 제시한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상인 病證藥理의 뜻은 체질론적 論病·論藥을 의미하는 말로 체질을 바탕으로 하여 이어지는 體質病證과 그 體質病證의 運營藥理를 함께 지칭하는 개념인데 東武公은 네 개의 體質病證藥理를 완성하고 이를 네 개의 체질론적 치료의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사상인의 체질감별만 정확하면 기존의 한의학 이론으로도 사상의학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상인 病證藥理에 대한 인식에는 크게 소홀한 실정이다.

동무공은 「辨證論」에서 사상인 體質病證의 성립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상인에 대한 생리현상과 병리 현상을 정신적 입장과 육체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건강한 생리적 조건으로는 사상인의 “恒心”과 “完實無病”을 말하여 體質證을 제시하고, 이런 상태가 깨져 병리적 상태가 되면 “恒心の 尤甚證”과 “大病”을 말하여 體質病證의 順證 概念을 설명하고, 이 보다 病이 악화되면 “性情偏急”의 心理狀態와 “特異病證”을 말하여 체질병증의 逆證概念을 설정하여 心身論의 입장에서 順證과 逆證 개념의 체질병증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체질병증의 현상들을 크게 表病證과 裏病證으로 나누고, 여기에 寒熱病證과 心身病證

그리고 順逆病證의 概念을 함께 포괄하여 “形證病證”으로 요약하고 이를 輕重으로 나누어 四大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체질병증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形證病證”의 설명 방법은 동무공의 본체론적 인식 체계인 太極의 心, 兩儀의 心身, 四象의 事心身物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사상인의 생리적 체질증을 太極(性情), 兩儀(臟腑性理), 四象(體形氣像)의 성립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상인의 체질병증을 太極(臟腑性理), 兩儀(外感, 內傷, 喜怒哀樂의 偏差), 四象(四大形證病證)의 성립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明知其人”과 “明知其證”을 말하고 있는데, 明知其人은 심신양면적 관찰에서 사상인의 체질속성을 아는 것이고, 明知其證은 사상인의 체질적으로 나타나는 生理的證과 病理的證을 함께 관찰하는 것으로 서로 선후의 상관성을 갖고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形證病證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人物形容을 仔細히 商量하고 再參推移하여 如有迷或則參互病證하라”고하여 明知知人의 方法에서 人物形容을 取象辨證하는 것이 體質辨證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상인의 체질감별이 모호할 때에는 明知其證인 體質病證의 形證病證을 관찰하여 체질감별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상인의 체질병증의 성립과정에서 形證病證의 정확한 이해는 사상의학의 운영정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方法이 되는 것이고 체질 변증과정에서 체질감별의 검증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상의학의 體質論의 假說에 대한 實證的 立證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體質病證에 대한 운영정신에는 사상인의 臟腑性理가 서로 달라 그 운영방법에서 서로 陰陽升降緩速에 대한 差異가 있게 되고 사상인 고유한 病證體系와 그에 따른 運營藥理가 따로 있게 되어

서 동무공은 항상 사상인의 病證藥理란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동의수세보원과 격치고를 통하여 四象人 病證藥理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추구정신과 그 운영정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本 論

### A. 四象人 病證藥理의 成立過程에서 나타난 追求精神.

#### 1. 形象醫學과 形證病證의 追求精神

동무공은 「醫原論」에서 자신의 醫學史觀을 밝히면서 사상의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내려온 의학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의학의 始興과 中興期에는 중국의 張仲景과 朱肱이 주도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復興期에는 우리나라의 許俊이 주도적 업적을 보여 證治醫學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하고, 許俊의 의학정신을 바탕으로 동무공은 새로운 체질론적 사상의학을 만들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許俊은 <東醫寶鑑>에서 道敎의 생명관을 도입하여 「身形篇」을 설명하고 있는데 “精氣神 三要(裏氣)가 五臟六腑에 작용하여 顔面 形氣色澤(表形)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身形을 이용하여 인체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생명의 壽 不壽를 짐작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氣裏形表”의 정신에 입각한 形氣論의 形象醫學을 추구한 것이다.

동무공은 許俊의 형상의학 정신을 이어받아 그의 本體論的 精神에 입각한 形心論的 形象醫學을 완성하게 된다. 즉 許俊이 추구한 형상의학은 체질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획일적 형상의학이라고 한다면 동무공이 만든 형상의학은 네 체질적 형상의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상의학의 추구정신은 이제까지 복잡한 의학이론의 원리를 보다 간편한 체질론적 형상의학으로 만들어 설명하고 이를 “必廣明醫學하여 家家知醫하고 人人知病”하려는 동무공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동무공은 體質病證의 설명에 “形證病證”의 요약정신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形證病證”의 설명 방법은 인체의 다양한 병리현상을 몇 가지 “類型病證”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 2. 歸納的 方法의 導入과 實證的 醫學의 追求精神.

동무공은 「醫原論」에서 의학이론의 점진적 발전론을 배경으로 하여 사상의학이 나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상의학의 病證藥理가 완성되기 까지에는 자신이 혼자 체험한 의학 경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張仲景의 상한론적 체험과 宋元明醫家들의 의학적 체험을 모아 體質病證藥理가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즉 “少陰人 病證藥理를 張仲景이 거의 소상하게 發明하였는데 宋元明醫師들이 거의 完全할 정도로 發明하였고 少陽人 病證藥理를 張仲景이 절반 정도를 發明하였는데 宋元明醫師가 거의 소상하게 發明하였고, 太陰人 病證藥理는 張仲景이 대략 그림자 정도만 얻었으며 宋元明醫師가 절반 정도 發明하였고, 太陽人 病證藥理는 朱震亨이 약간 그림자만 얻었고 本草에 약간의 藥理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여 역대 의가들의 의학적 체험 속에서 귀납적 방법으로 體質病證藥理精神을 발굴하고, 여기에 자신이 체험한 의학 경험을 모아 사상의학의 病證藥理가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동무공은 사상인의 양생론을 말할 때 華佗의 養生之術과 어느 노인의 체험적 음식 섭생방법을 도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개발한 체질론적 “恒心”의 寧靜方法과 “喜怒哀樂”의 恒戒方法을 추

가하여 새로운 養生方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그는 “舜임금이나 孔子같은 성인도 衆人之才能을 博學審問해서 겸비했기 때문에 모두 크게 될 수 있었다.”고하여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체험이나 장점을 취하여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귀납적 방법의 학문방법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귀납적 방법의 배경에서 만들어진 病證藥理의 추구정신은 의학적 원리와 체험적 현실과의 거리를 좁혀 사상의학을 보다 실증적 의학으로 만들려는 의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동무공은 1894년(甲午) <東醫壽世保元>을 완성한 뒤에도 1900년(庚子) 돌아가실 때까지 체질적 病證藥理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추가하여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사상의학의 실증적 완성을 위하여 애써 왔나를 알 수 있다.

### 3. 人間中心的 病理觀의 追求精神.

기존의 내경의학이 黃老學派의 배경에서 출발한 五行과 天人相應關係의 병리이론을 근간으로 삼는다면, 사상의학은 유학적 배경에서 나온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한 病理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무공은 “옛날 의사들이 단지 음식물로 인해 비위가 傷하거나 風寒暑濕의 침범으로 병이 되는 줄만 알았지 愛惡所慾과 喜怒哀樂의 偏着이 병이 되는 줄은 몰랐다”고하여 喜怒哀樂이 病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또한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이 모두 行身不誠하고 知人不明한데서 온다”고하여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오는 갈등과 개체의 내면적 불성실에서 나오는 갈등이 모두 知行의 不備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또한 “哀怒之氣는 上昇하는 氣運으로 逆動하게 되면 下焦인 肝腎이 傷하고 喜樂之氣는 下降하는 氣運으로 逆動하게 되면 上焦인 肺脾가 傷한다”고

하였으며 “太陽人은 哀가 極하면 忿怒가 激外하고 少陽人은 怒가 極하면 悲哀動中하고 少陰人은 樂이 極하면 喜好不定하고 太陰人은 喜가 極하면 侈樂無厭하게 된다”고하여 喜怒哀樂의 失中이 病으로 이어짐을 체질별로 설명하여 性情論的 病理觀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四端論」에서 “不全其天稟則 人事之壽不壽而命之傾也니 不可不慎也니라”하여 人事의 壽不壽에 따라 그 命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人事에는 事務 交遇 黨與 居處가 있는데 태양인은 黨與가 어렵고 소양인은 居處가 어렵고 태음인은 事務가 어렵고 소음인은 交遇가 어렵다고 하여 사상이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에서 酒色財權의 중용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嬌奢 懶怠 偏急 貪慾을 주의하고 勤幹 簡約 聞見 警戒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사상의학의 궁극의 목표는 “妬賢嫉能은 天下之多病이요 好賢樂善은 天下之大藥이라”하여 도덕 및 윤리적 의학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무공은 성정론적 병리관과 도덕 및 윤리적 병리관을 제시하여 인간중심적 사고의 병리관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擴大된 心身論的 治療精神

사상의학의 치료정신에는 기존의 약물과 침구의 수단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려는 고전적 방법 외에 정신(마음)적 안정을 주 치료수단으로 함으로써 확대된 心身論的 治療精神을 추구하고 있다.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다루어 질병을 치료하는 심신균형적 치료정신 속에는 오히려 약물과 침구의 수단이 性情의 균형을 잡아 주는데 필요한 보조 수단으로 이해해야 하며, 동무공은 약물적 방법보다는 “知人正己論”을 바탕으로 하는 “治心治病”의 정신을 치료의 근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것

이다.

그는 「四端論」에서 “浩然之氣는 出於肺脾肝腎이요 浩然之理는 出於心이라”하고 “四臟之氣를 擴而充之則 浩然之氣가 出於此也니라”하였으며 “一心之慾을 明而辨之則 浩然之理가 出於此也라”하였는데 이는 心身의 관계가 상호의존관계이며 보완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性命論」에서 인간은 평생 동안 責心責氣하는 心身의 存在로서 尊其心 養其性하고 修其身立其命 하는 스스로 知行을 닦아 心身을 다스려 나가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은 전적으로 본인의 修與否에 달려있다고 보고 그 수양의 기본은 喜怒哀樂 性情의 中節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질병의 예방차원 뿐만 아니라 性情의 昇降緩速의 조절을 통해 치료한다는 사상의학의 치료원칙이 되고 있다.

동무의 사상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知人을 통한 治心正己의 정신은 사상의학에서 治心 治病 治心養生 등의 의학적 정기의 내용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또한 생활적 정기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무공은 사상인 病證藥理의 치료정신을 性情의 昇降緩速의 조절을 통한 心身論的 균형정신에서 찾고 있으며, 크게 약물과 침구에 의한 心身論的 균형방법과 생활적 정기를 통한 心身論的 균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生活的 正己를 통한 확대된 심신론적 조절정신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 5. 正氣中心의 病證藥理의 調節精神.

이제까지 증치의학의 병증약리는 누구에게나 六經病證이나 五臟病證의 약리가 획일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그 病證의 寒熱虛實의 조절에 그 치

료의 주안점을 두었으나, 사상의학에서는 체질마다 다르게 대항하는 양상에 따라 順證과 逆證으로 나누고 正氣의 昇降緩速을 조절하는데 치료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무공은 사상인의 생리적 臟腑의 大小에 대한 自註에서 “태양인은 呼散之氣의 太過와 吸聚之氣의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吸聚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태음인은 吸聚之氣의 太過와 呼散之氣의 부족이 되기 쉬우므로 呼散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소양인은 納積之氣의 太過와 出放之氣의 부족으로 陰清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소음인은 出放之氣의 太過와 納積之氣의 부족으로 陽煖之氣가 保命之主가 된다”고 하여, 保命之主가 심하게 부족하면 병적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를 完實無病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 건강과 질병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동무공은 사상인의 正氣(保命之主)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8개의 체질병증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少陰人 表病證에서는 表陽(正氣)의 昇氣가 필요하고 裏病證에서는 裏陰(正氣)의 降氣가 必要하며, 少陽人 表病證은 表陰의 降氣가 필요하고 裏病證에서는 裏陽의 上昇이 필요한 것이다. 太陰人 表病證은 肺陽昇氣를 도와주고 裏病證에서는 清肝燥熱시켜 裏陰을 下氣시키며, 太陽人 表病證은 戒深哀遠嗔怒해서 下降之氣를 도와 下虛上實을 막아 주고 裏病證에서는 遠嗔怒斷厚味하여 吸聚之氣를 도와 氣液의 呼散을 抑制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邪氣實 正氣虛에 따른 補寫概念의 병증약리의 조절이 아니라 사상의학에서는 각 체질의 고유한 正氣를 중심으로 順氣, 調氣하는 차원에서 正氣의 상태에 따라 음양의 승강완속을 달리하는 조절정신에서 체질병증약리를 운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6. 豫防과 養生醫學의 追求精神.

동무공은 사상의학에서 적극적인 질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평소 인격의 완성(수양)과 질병의 예방의학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생활속에서 구하고 있다.

「廣濟說」에서 “유년기에 병이 나면 자애로운 어머니가 보호해야 하고, 소년기의 병은 지혜로운 아버지나 유능한 형이 보호해야 하며, 장년기의 병은 현명한 아우나 선량한 친구가 도와주어야 하고, 노년기의 병은 효자나 효손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만약 시골 사람이 聞見이 없거나 독서하는 사람이 경계함이 없다면 요절의 화를 당한다”고 하여 연령적 성장과 생활환경의 조건이 건강과 壽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나아가 嬌侈, 懶怠, 偏急, 貪慾 등의 私心怠行은 목숨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酒色財權을 수반하게 되어 일신의 壽夭와 一家의 禍福이 모두 이것과 관련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려면 酒色財權의 중용을 지키고 평소 簡約 勤幹 警戒 見聞의 생활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섭생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무공은 “태음인은 察於外而恒寧靜怯心하고, 소양인은 察於內而恒寧靜懼心하며, 태양인은 退一步而恒寧靜急迫之心하고 소음인은 進一步而恒寧靜不安之心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어서 “태양인은 항상 怒心哀心を 경계하고, 소양인은 항상 哀心怒心を 경계하며, 태음인은 樂心喜心を 경계하고, 소음인은 喜心樂心を 항상 경계하라”고 하여 각각 사상인의 성정관리를 통한 心身攝生法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무는 일상 생활에서 의식과 생활방법에

대한 양생을 말하고 있고 藥物에 대한 남용을 경고하고 있다. 즉 “음식은 能忍飢而不貪飽해야 되고 의복은 能耐寒而不貪溫해야 하고 근력은 能勤勞而不貪安逸해야 되고 재물은 能勤實而不貪苟得해야 한다”고 하여 일상생활에서 안빈락도하고 극기하는 삶을 강조하였으며, “평소 鴉片煙, 水銀이나 山蔘 鹿茸을 過信하여 屢服則 無不促壽한다”하여 약물의 남용을 경고하였다. 또한 평소 생활속에서 체질적 음식의 섭생법을 제시하고 있어 결국 사상의학은 평소의 체질적 관리를 이용한 양생의 학이며 생활 속에서 찾는 예방의학이라 할 수 있다.

## B. 四象人 病證藥理의 運營精神

### 1. 體質 病證藥理의 差等的 運營精神

동무공은 “明知其人而 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라”하여 體質과 體質病證이 일치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 비로서 藥을 쓰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상인의 체질에 따른 完實無病과 大病의 조건을 제시하고 체질이 다르면 병증도 달라진다고 보고 체질병증을 크게 表病證과 裏病證으로 나누어 8개의 병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차등적 운영정신을 말하고 있다.

사상인의 장부의 大小는 단순히 형태의 대소나 장부기능의 허실개념이 아니라 呼散之氣, 吸聚之氣, 納積之氣, 出放之氣의 大小偏差로 이해되며, 이것을 또한 喜怒哀樂의 昇降氣運에 의해서 直升, 橫升, 放降, 陷降의 作用이 있다고 肺脾肝腎의 機能을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동무공은 사상인의 臟理的 특성에서 偏小之臟의 기능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데 예를 들면 소음인이 腎大脾小해서 出放之氣는 과다한 반면 納積之氣는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이때

偏小之臟인 脾의 무리에 속하는 筋와 胃는 本이 되고, 偏大之臟인 腎의 무리에 속하는 膀胱, 大腸은 表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음인은 陽暖한 기운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생명 유지의 주된 요건이 된다고 하였고 다른 체질도 이와 같은 설명으로 소양인에게 陰清之氣가 태음인에게 呼散之氣가 태양인에게 吸聚之氣가 保命之主가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保命之主의 부족이 병적 상태라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은 無病狀態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무공은 이를 기준으로 完實無病과 大病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 保命之主의 상태가 심하게 부족하면 사상인 중에 그 체질에만 나타나는 “特異病證”의 유형이 나타난다고 하여 태양인의 열격과 태음인의 痢病, 소양인의 便閉, 소음인의 泄瀉不止症의 특이증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사상인의 臟理에서 “水穀은 納於胃而 脾衛之하고 出於大腸而 腎衛之하니 脾胃者는 出納水穀之府庫라”하여 소음인 소양인의 병증은 수곡의 출납과정에서 생긴 병증약리임을 알 수 있고, “氣液은 呼於胃脘而 肺衛之하고 吸於小腸而 肝衛之하니 肝肺者는 呼吸氣液之門戶라”하여 태음인 태음인의 병증은 기액의 대사과정에서 생긴 병증약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사상인의 체질병증에서 性氣는 인체의 表의 기운을 상하고 情氣는 裏의 기운을 상한다고 하여 表裏病證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태양인의 哀性은 表氣를 상하고 怒情은 裏氣를 상한다고 하였고, 소양인 怒性은 傷表氣하고 哀情은 傷裏氣하고, 태음인 喜性은 傷表氣하고 樂情은 傷裏氣하고, 소음인 樂性은 傷表氣하고 喜情은 傷裏氣한다고 구분하여 8大病證을 설명하고 있다.

腎大脾小한 소음인의 병증은 크게 腎受熱表熱病과 胃受寒裏寒病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음인은 전

체적으로 升降의 기준에서 중심 세력이 정중선아래에 있어 陰化되기 쉬우므로 陽暖之氣가 잘 유지하는 방향에서 升降概念을 운용한다. 그 중 表病證은 腎大함으로 인해 생기는 陰化된 기운을 어떻게 陽化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升陽益氣를 치법으로하고 있으며, 裏病은 脾小로 인해 생긴 陰實之氣를 풀어 주는 방법으로 濫胃而降陰시켜 裏陰降氣를 치법으로 하였다.

소음인병증은 소양인병증과 함께 水穀之氣의 출납과정에서 생긴 병증으로, 陽氣의 進退強弱과 冷氣의 聚散輕重에서 운영정신을 찾고 있고, 소양인병증이 裏熱病證인 것에 비하여 소음인 병증은 裏寒病證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脾大腎小한 소양인병증은 脾受寒表寒病과 胃受熱裏熱病으로 구분되는데, 대체적으로 소음인 병증이 寒病證이라면 少陽人病證은 火와 熱病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양인은 중심 세력이 상부에 있어 陽化하기 쉬우므로 陰清之氣가 保命之主라는 바탕에서 승강개념을 운용한다.

대체로 표병증은 脾大로 말미암아 울체된 表陰을 내려 주는 목적으로 表陰降氣를 치법으로 하였고, 裏病證은 腎小에서 기인한 火와 熱을 해결하기 위해 裏陽(清陽)上升을 치료방향으로 삼고 있다. 다만 表裏病證의 관계에서 裏熱證을 관리하기 위하여 清熱瀉火시켜 변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 되고 있다.

肝大肺小한 태음인의 병증은 크게 胃脘受寒 表寒病과 肝受熱 裏熱病으로 大別되는데, 태음인의 肺小해서 胃脘의 呼散하는 힘과 肺의 上升하는 힘이 함께 부족하여 생긴 表病證의 치료는 발한시켜 肺陽上升을 도와주고 潤燥시켜 氣液之氣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고, 裏病證은 肝大에서 오는 吸聚之氣의 과다와 “侈樂無厭 慾火外馳”로 인한 內鬱에서 오는 肝燥熱을 대변을 通裡시켜 풀어주는 것이



치료법이 되고, 燥가 심하면 表裏病 모두에 潤燥 潤血藥을 더불어 사용하기도 한다.

태음인의 병증은 태양인과 함께 氣液之氣의 호흡과 진퇴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증을 말하는데, 특히 表裏病證의 관계에서 裏熱證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多有燥證”과 “多無燥證”의 기준에서 素病熱證과 素病寒證을 구분하고, 전반적으로 燥病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保命之主인 呼散之氣를 바탕으로 脾胃와 大便을 조절하여 氣液之氣의 순환을 관리하는 것이다.

肺大肝小한 태양인병증은 크게 外感腰脊病과 內觸小腸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表裏病證의 寒熱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性情의 升降관계에서 病證의 운영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즉 태양인에 있어 直升하는 肺의 기운과 呼散之氣의 과다로 인하여 下虛上盛病證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위로 물리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함으로 小便이 잘 나가는 것이 건강의 지표가 되고, 기운이 위로 치우치게 되면 “口中吐沫”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므로 급히 서둘러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태양인의 병증관리는 上升된 기운을 끌어내려 주기 위하여 保命之主인 吸聚之氣를 도와주면서 表病證은 “必戒深哀遠嗔怒”하고 裏病證은 “遠嗔怒斷厚味”이라고 하였으며 藥을 쓰기 전에 깊이 슬피하거나 화를 경계하고 기름진 음식이나 辛熱한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태양인 병증의 관리는 평소 心性을 잘 가다듬어 性情을 주의하고 음식을 주의하여 예방에 힘쓰고 특히 소변과 대변을 관리하여 氣液之氣의 上升을 막아야 하고 그래도 病이 났을 때에는 藥물로 치료하여 관리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사상인의 병증을 요약하면 소음인과 소양인 병증의 특징은 水穀之氣의 輸納과정에서 나타난 寒病證과 火熱病證으로 비교되고,

태음인과 태양인 병증은 氣液之氣의 進退에서 나타난 燥熱病證과 性情病證으로 비교된다. 상하의 승강관계에서 비교한다면 소음인병증은 기운이 아래로 下陷된 병증이고 태양인병증은 위로 상승된 병증으로 비교되고, 태음인과 소양인 병증은 중간에서 內鬱된 熱病證으로 燥熱病證과 火熱病證으로 비교된다.

이를 다시 사상인 병증약리의 총괄적 운영정신에서 본다면 사상인의 선천적인 장기의 大小에 따른 기의 偏在와 性情의 升降失調에 의해 발생한 병증의 上下의 偏在現狀을 사상인의 正氣(保命之主)를 중심으로 증용적 조화와 조절차원에서 表裏氣의 升降緩速을 조절하고, 이를 통하여 表裏病證의 寒熱의 內外的 偏在現狀과 心身의 不均衡 現象이 함께 조절된다고 보는 것이다.

동무공은 表裏病證의 운영정신에서 두 병증의 관리는 원래 상반된 속성을 지니고 운영되고 있지만 크게는 두 병증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표병에서 이병을, 이병에서 표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방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표리검병의 관리에서 “二證俱見이면 當先其急하라”하여 그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다음 병증을 관리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체질에 따른 正氣의 확보차원에서 병증관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2. 四象人 藥物의 自律의 活用精神.

동무공은 “皆有病者 可以服藥이요 無病者 不可以服藥이니라 重病에 可以 重藥이지만 輕病에 不可以 重藥이라”하여 사상인의 藥물의 복용과 방제의 활용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皆有病者는 明知其證則 必不可服藥이지만 無病者는 雖明知其證이라도 必不可服藥이라”하였고 “明知其人而又明知其證則 應用로 藥을 必無可疑니

라"하여 사상인의 방제의 활용은 체질병증의 관리 차원에서 체질과 그 체질에 부합되는 병증이 일치 되었을 때 반드시 약을 쓸 일이고 체질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병증이 없으면 절대로 약을 써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 輕病에 重藥을 쓰거나 重病에 輕病藥을 써서도 안되고 만일 輕病에 重藥을 쓰거나 無病者가 服藥하기를 좋아하면 臟氣가 脆弱해서 더욱 질병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오히려 약을 남용해서 오는 피해가 약을 쓰지 않고 생기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하였다.

세상에서 鴉片煙, 水銀이나 山蔘 鹿茸을 자주 복용하는 사람이 수명이 짧은 것을 볼 때 攻瀉하는 약은 물론이지만 보약이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복용하면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고, 평소 고량진미를 자주 먹거나 두꺼운 가죽옷을 자주 입어서 생기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약을 자주 복용해서 오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무공은 체질의 자율적 조절능력의 입장에서 약물의 활용정신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질과 병증이 일치되어 약을 쓸 때에도 병증의 輕重緩急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해야 하는데 "重病危證의 藥을 하루 3 - 4服하지 않으면 藥力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連日服하는 데에도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병세에 따라서 도모해야 한다"고하여 약의 복용량과 복용일수를 병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을 볼 수 있다.

동무공은 소음인병의 "六大證"에서 "陽明, 少陰病은 以邪犯正之病이니 不可不急用藥也라"하고 "厥陰 陰毒病은 正邪相傾之病이니 不可不豫用藥也라"하였으며 "胃家實 黃疸病은 正邪壅滯之病이니 不可不大用藥也라"하여 병증의 성질을 正氣와 邪

氣의 관계로 규정하고 正氣의 입장에서 크게 急用, 豫用, 大用藥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투약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그는 소양인병에서 "中風, 吐血, 嘔吐, 腹痛, 食滯痞滿의 五證은 同出一屬而自有輕重이라"하여 五大病證을 나누고, 이중에서 "中風은 受病이 太重故로 치법을 不可期必이지만 吐血은 受病而 猶輕故로 치법을 可以期必한다"고 말하고 "中風 吐血은 調養爲主 服藥次之이지만 嘔吐이하 腹痛 食滯痞滿은 服藥調養則其病易愈라"하여 病證을 크게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과 불가능한 병증의 輕重으로 나누고, 重病證에서는 약물보다는 調養的 攝生을 위주로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무공은 "急病은 可以急治 緩病은 不可以急治니 緩病은 緩愈然後에 可謂眞愈요 緩病이 速效則 終必更病하여 難治니라"하여 病證의 관리에서 緩急의 구분과 특히 緩病에서 순리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양인병은 裏火熱로 爲證故로 變動甚速하니 初證을 不可輕以視之也라"하여 체질에 따라 병증의 진행속도가 다르다 하였고, 또 "重病에 不當用之藥을 一二三貼 誤投則必殺人이라"하여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여, 질병에 대한 완급개념이나 병증에 대한 약물의 반응도 체질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동무공은 "藥不能速效者에 針能速效者有之하니 蓋鍼穴亦有大小陰陽人應用之穴而必有升降之妙라"하여 약물에 대신 침치료에 대한 효과에서 升降緩速의 精神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상인의 방제 대신 일부 체질병증을 질병치료에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체질의 보명지주를 도와 체질병증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동무공은 사상인약물의 활용정신은

체질과 체질병증의 합일을 전제로한 輕重緩急의 관리정신과 사상인의 자율적 조절정신에 입각한 투약정신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상인병증약리의 운영정신에는 약물에 의한(방제) 운영정신, 침구에 의한 운영정신, 심신적 섭생에 의한 운영정신 체질음식에 의한 운영정신이 있다.

### III. 總括 및 考察

사상인 체질병증의 성립과정은 동무공의 본체론적 인식체계인 太極의 心, 兩儀의 心身, 四象의 事心身物의 精神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사상인의 체질병증을 太極(臟腑性理), 兩儀(外感內傷, 喜怒哀樂의 偏差), 四象(四大形證病證)의 成立過程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동무공은 『辨證論』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상인 체질병증의 성립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상인에 대한 생리적 현상과 병리적 현상을 심신양면적 입장에서, 건강한 생리적 조건으로는 恒心과 完實無病을 말하고 있고, 병리현상의 조건으로는 恒心の 尤甚證과 大病을 말하여 체질병증의 순증을 설명하고 있고 이보다 病이 악화되면 性情의 偏急의 심리상태와 특이병증을 말하여 체질병증의 역증을 설정하여 체질병증의 順逆 概念을 설명하고 있다.

동무공은 체질병증의 順逆概念을 확대 적용시켜 사상인 병증론에서 사상인의 表裏病證을 구분하여 8개의 사상인 병증약리를 形證病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병증약리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추구정신을 아래와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1) 形象醫學과 形證病證의 추구정신 2) 귀납적 방법의 도입과 실증적의학의 추구정신 3) 인간중

심적 병리관의 추구정신 4) 확대된 心身論的 치료정신 5) 正氣中心의 병증약리의 조절정신 6) 예방과 양생의학의 추구정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상의학의 병증약리의 운영정신에서 체질병증약리의 차등적 운영정신과 사상인약물의 자율적 활용정신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체질병증약리의 차등적 운영정신에서 동무공은 체질적 조건과 체질병증의 조건이 함께 부합되었을 때 비로서 사상론적 방제가 적용된다고 말하고 사상인의 체질에 따른 完實無病과 大病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체질이 다르면 병증도 달라진다고 보고 체질병증을 크게 表裏病證으로 나누어 8개의 병증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차등적 운영정신을 말하고 있다.

즉 少陰人 腎受熱表熱病은 升陽益氣의 방법을 胃受寒裏寒病은 裏陰降氣의 방법을 쓰고 있고 少陽人 脾受寒表寒病은 表陰降氣를 치법으로 胃受熱裏熱病은 清陽上升을 치법으로 하고 있다. 太陰人의 胃脘受寒表寒病은 肺陽上升을 치법으로 肝受熱裏熱病은 清肝燥熱을 치법으로 삼고 있으며 太陽人의 外感腰脊病은 必戒深哀遠嗔怒하고 內觸小腸病은 遠嗔怒斷厚味를 치법으로 삼고 있어 차등적 운영정신을 말하고 있다.

사상인병증의 특징을 비교하면 소음인과 소양인 병증의 특징은 수곡지기의 출납과정에서 나타난 寒病證과 火熱病證으로 비교되고 태음인과 태양인 병증은 기액지기의 진퇴과정에서 나타난 燥熱病證과 哀性怒情의 性情病證으로 비교된다. 이를 다시 上下의 승강관계에서 비교한다면 소음인 병증은 기운이 아래로 하함된 寒病證이고 태양인 병증은 위로 상승된 性情病證으로 비교되고 태음인과 소양인병증은 중간에서 내올된 燥熱病證과

火熱病證으로 비교된다.

이를 다시 사상인병증약리의 총괄적 운영정신에서 본다면 선천적인 장기대소에 따른 氣의 편재와 性情의 승강실조에 의해 발생한 병증의 상하적 편재현상을 사상인의 正氣(保命之主)를 중심으로 증용적 조화와 조절차원에서 表裏氣의 升降緩速을 조종하고, 이를 통하여 表裏病證의 寒熱에 대한 內外的 偏在現象과 心身의 不均衡 現象이 함께 조절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상인약물의 자율적 활용정신에서 동무공은 체질병증의 경중완급의 구분정신에서 병증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병증을 크게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과 불가능한 병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重病危證에서는 약물보다는 조양적 섭생을 위주로 하여 관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병증의 관리에서 완급의 구분과 緩病에서 특히 순리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또한 체질에 따라 병증의 진행속도가 다르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여 동무공은 병증의 輕重緩急의 관리정신과 체질의 자율적 조절입장에서 약물의 활용정신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상인병증약리의 운영정신에서는 약물에 의한 방제 운영정신, 침구 치료에 의한 운영정신, 심신섭생에 의한 운영정신, 체질음식에 의한 운영정신이 있다.

#### IV. 結 論

사상인 병증약리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추구정신과 그 병증약리의 운영정신에 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상인 병증약리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추구정신에는 1) 形象醫學과 形證病證의

추구정신 2) 귀납적 방법의 도입과 실증적 의학의 추구정신 3) 인간중심적 병리관의 추구정신 4) 확대된 심신론적 치료정신 5) 正氣中心의 병증약리의 조절정신 6) 예방과 양생의학의 추구정신이 있다.

둘째, 사상인 체질병증약리의 차등적 운영정신에는 1) 表裏病證의 구분정신 2) 水穀病證과 氣液病證의 구분정신 3) 順逆病證의 구분정신이 있다.

表裏病證의 구분정신에서 초기에는 性情病證으로 설명하였으나 寒熱病證이 추가되어 表裏病證으로 구분하고 있다.

水穀病證과 氣液病證의 구분정신에서는 소음인과 소양인의 병증은 水穀의 出納과정에서 생긴 병증약리로 설명하였고, 태음인과 태양인은 氣液의 呼吸과정에서 생긴 병증약리로 설명하고 있다

順逆病證의 구분정신에서는 모든 병증의 輕重緩急의 현상을 순역병증으로 요약하여 운용하고 있다.

셋째, 사상인 병증의 특징을 비교하면 소음인과 소양인 병증의 특징은 수곡지기의 출납과정에서 나타난 寒病證과 火熱病證으로 비교되고, 태음인과 태양인 병증은 氣液之氣의 진퇴과정에서 나타난 燥熱病證과 性情病證으로 비교된다.

이를 다시 상하의 승강관계에서 비교하면 소음인 병증은 기운이 아래로 下陷된 寒病證이고, 태양인 병증은 위로 상승된 性情病證으로 비교되고 태음인과 소양인 병증은 중간에서 內鬱된 燥熱病證과 火熱病證으로 비교된다.

넷째, 사상인 약물의 활용정신에서는 병증을 크게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과 불가능한 병증으로 구분하였고, 약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증에서는 약물보다는 調養的 攝生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병증의 진행과정과 약물에 대한 반응이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여 체질의 자율적 조절 입장에서 약물의 활용정신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상인 체질병증의 운영방법에는 사상 방제에 의한 병증운영방법, 침구치료에 의한 병증 운영방법, 심신섭생에 의한 병증운영방법, 체질음식에 의한 병증운영방법 등이 있다.

이상을 총괄하면 선천적 장기의 대소에 따른 氣의 편재와 性情失調에 의해 발생한 병증의 上下의 偏在現象을 조화와 조절의 차원에서 表裏氣의 升降緩速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寒熱病證의 內外的 偏在現象과 心身病證의 不均衡現象이 함께 조절된다고 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체질속성에 따른 正氣의 확보 차원에서 병증관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상인 병증약리의 운영정신은 체질에 따른 차등적 반응의 바탕에서 자율적 조절을 도모하는 의학정신이라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李齊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信一文化社, 1964.
2. 李齊馬, 格致叢, 함흥, 德興印刷所, 1940.
3.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서울, 大同印刷株式會社, 1928.
4.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0.
5. 李乙浩, 洪淳用,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3.
6. 宋一炳,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社, 1993.

# ABSTRACT

## The Basic principle of treatment according to the symptom (病證藥理)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l-Byung Song, O.M.D., Ph D., Prof.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130-702 KOREA*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eks the psychosomatic balance, and the Basic principle of treatment according to the symptom(病證藥理)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uld be summarize as follows.

1. The pursuit of Shape-Image Medicine (形象醫學) and the Symptoms of shape - Symptoms of disease (形證病證).

It established emotion, symptoms of constitution, and symptoms of constitutional disease on the base of Shape-Image Medicine (形象醫學) which means qi (氣) is inside and shape is outside (氣裡形表).

2. The inductive medicine and positive medicine.

It systematized the Symptoms of shape - Symptoms of disease (形證病證) on the base of the medical practice of the ancients and Lee Jae-Ma (李濟馬)'s own experience inductively, and it presents how to control the psychosomatic balance practically.

3. The pathology centering on human.

Oriental medicine is based on Yin-Yang (陰陽) and Five elements (五行) and the harmony of nature and human (天人相應) of Taoism, bu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based on emotional and ethical pathology of Confucianism (儒學).

4. The treatment according to the symptom (病證藥理)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entering on clear qi (正氣).

The promotion and demotion (補瀉) which is based on clear qi (正氣) and evil qi(邪氣) is a basic principle in Oriental medicine, but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t is attached importance to control of clear qi and classify obedience symptom and disobedience symptom (順·逆症) as the type to oppose disease .

5. The treatment according to the psychomatic symptoms.

It takes importances to control of one-sided emotion as well as the treatment of psychical symptoms, and also to remedy disease as keeping under control one's mind.

6. The preventive medicine and the medicine to develop one's health.

It is in pursuit of social health to develop personality through clear qi (正氣) in real life, to prevent disease, and to spread the sickness control of individual pers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pursuits the psychosomatic balance through 'Balance', 'Control', 'Self regulating Control' of the 'Golden Mean (中庸)' with the treatment according to the symptom (病證藥理)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